

2007년 아시아 각국 간의 EPA·FTA 통상전략

일본은 2006년 12월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와 EPA(經濟提携協定)의 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合意)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인도네시아와 회담의 줄기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여, 동(東)아시아라는 큰 틀 속의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한·중·일(韓·中·日),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16개국 간의 EPA교섭을 추진한다는 통상구상(通商構想)을 서서히 추진시켰다.

EU와 맞먹을 만한 동아시아의 시장경제권(市場經濟圈)을 만들어 내는 액션플랜(action plan)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는 느낌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자적으로 FTA(自由貿易協定)전략(戰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교섭이 중단된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느냐가 주목된다.

◎ 각국과의 EPA교섭이 진행 중

1999년 12월에 WTO(世界貿易機構) 시애틀 각료(閣僚)회의가 실패한 후, 일본은 다국간교섭(多國間交渉)뿐만 아니라, 지역간(地域間)의 교섭도 중요하게 보는 정책으로 바꿨다. 2002년 1월, 일본에게는 최초의 FTA(Free Trade Agreement)가 되는 ‘일본·싱가포르 신시대(新時代)경제제휴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2005년 4월부터 아세안 주요국과의 EPA교섭을 정식으로 개시하여, 2006년 7월에는 말레이시아와 EPA를 체결하였고,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와는 큰 윤곽을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다. 타이에서는 2006년 쿠데타가 일어

났는데, 일본은 잠정정권(暫定政權)이라도 서명할 방침이며 대세(大勢)에는 영향이 없다.

칠레와는 2006년 교섭을 개시하였고, 브루나이와 함께 2007년 내에는 큰 줄기의 합의를 볼 것이다. 2007년에는 인도, 호주, 베트남과의 협의를 추진한다. 일본의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섬유과 통상실(通商室)은 2005년에 교섭을 시작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짐작하였는데, 2007년에 들면서 교섭페이스(交渉pace)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이 내놓고 있는 동아시아 EPA구상(構想)은 무역거래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아시아를 핵으로 하는 통상전략이다. 2008년에는 한·중·일(韓·中·日)과 아세안·인도·호주·뉴질랜드의 16개국과의 교섭을 추진할 것이다.

동아시아 전체의 명목(名目)GDP(Gross Domestic Product)는 EU와 맞먹는 규모이며, 중장기적(中長期的) 성장률(成長率)을 대략 계산해 보니 EU를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 걸친 시장경제권(市場經濟圈)이 만들어지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수요확대, 생산·유통네트워크(network)의 효율화 같은 메리트(merit)가 기대된다.

◎ 섬유산업은 민간주도로 진행

일본의 섬유산업에게 EPA·FTA 체결의 메리트로서는, 중국으로의 일극집중(一極集中)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키며,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의 산업력(産業力)도 희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는 하나 협정대상은 폭이 넓으며,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서로 앞을 다투며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중국·한국과의 교섭

을 순조롭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EPA 추진상황 (2006년 12월 현재)		
아세안	싱가포르	2002년 11월 발효
	필리핀	2006년 9월 체결
	말레이시아	2006년 7월 발효
	타이	2005년 7월 큰 틀 합의
	인도네시아	2006년 11월 큰 틀 합의
기타 나라들	오스트레일리아	2007년 교섭개시
	인도	2007년 교섭개시
	브루나이	2006년 12월 큰 틀 합의
	베트남	2007년 교섭개시
	칠레	2006년 9월 큰 틀 합의
	한국	2004년 11월 중단
	멕시코	2005년 4월 발효

2006년 12월에 일본은 중국, 한국과 경제담당장관회의(經濟擔當長官會議)를 열고, 중국은 한·중·일의 FTA체결로 3국 간의 무역확대를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로 해를 넘겼다.

일본섬유산업연맹은 2004년부터 정부 간의 교섭을 선도(先導)하면서 아세안 여러 나라와의 교섭을 개시하여,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4개국과 전(全)품목의 관세즉시철폐(關稅即時撤廢)와 원산지규칙(原產地規則)을 중심으로 23회에 걸쳐 끈질기게 교섭을 추진해 왔다.

일본측이 제안한 원산지규칙은, 가공공정을 중요시한 관세번호변경기준으로서 직물·편물·가먼트(garment)를 대상으로 제직·편성 이후의 공정이 모

두 당해국(當該國)에서 이루어져야만 원산지국(原產地國)으로 인정한다는 룰(rule)이며, 염색·마무리공정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염색한 직물·편물 및 가먼트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국에서 제직·편성공정뿐만 아니라 염색과 마무리를 책임지고 하여야한다는 것을 의무(義務)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제직·편성·염색산업이 없는 나라들에게는, 독자적인 ‘아세안누적(累積)룰’을 제안하였다. 아세안 역내(域內)의 나라에서 제조된 직물·편물 제품을 자국(自國)에서 봉제가먼트로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였을 경우, 일본은 수입관세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체결되면 공정(公正), 공평(公平)한 윈윈(win-win)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려한 제안으로서 전면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 효율적인 국제분업체제를 구축

2007년 1월 25일 유럽·미국·일본·중국의 섬유산업대표들이 모인 4극회의(4極會議)가 도쿄오의 로얄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2004년에 개최된 일·중(日·中)섬유산업발전협력회의에서 일본이 제의하였으며, 마침내 실현(實現)을 보게 된 것이다. 의제(議題)는 2005년부터 포스트 ATC(post纖維協定), WTO 도하라운드, 그리고 FTA에 대한 사고방식 등이다. 공식성명서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유럽 및 미국과 무역마찰이 생기고 있는 중국이 같은 테이블(table)에 앉음으로써 참가국 각기 현황과 과제를 서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아시아가 EPA·FTA로 성숙된 시장경제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각 나라들이 각기 장기(長技)분야를 확립하는 것이 되겠다.

더욱이 아시아가 EU나 NA(North America)의 FTA에 못지않은 경제권을 만들어 내려면, 능동적으로 장기분야를 보강(補強)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일본의 강점이 기술이라면, 마케팅(marketing)이나 생산의 오퍼레이션(operation)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중국은 패션(fashion)성이나 의장력(意匠力)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PA·FTA의 틀 속에서 나라나 지역이 서로 다른 기능을 보완(補完)하고 분업체제(分業體制)와 마켓을 만들어가는 데 일본의 정부나 민간이 해내야 할 역할은 크다. ♣